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탐라순력도' 관리 어디로

제주목관아 관리센터에 보물 품을까

목관아 관리사무소 철거 전시설 등 갖춘 센터 추진 '탐라순력도' 핵심 콘텐츠 수장 시설 조성 예정이나 실제 수장 여부는 미지수

국보 승격을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탐라순력도'를 제주목관아가 품을 수 있을까. 제주도 소유로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탐라순력도' 수장과 전시 계획을 담은 '제주목관아 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사적지인 제주목관아 부지에 관리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매입... 국립제주박물관 위탁 관리 '탐라순력도'는 제주사가 1998년 제주목사 이형상의 후손을 통

해 매입한 문화재다.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해오다 2004년부터는 국립제주박물관에 위탁 관리를 맡겼다. 자치도 출범 이후 일각에서 '탐라순력도'를 제주도립 박물관 등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수장 시설이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 관리를 유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금의 제주목관아 관리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관리센터 신축과 관련 '탐라순력도' 수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무실, 교육체험실, 전시실, 수장고를 갖추게 될 관리센터의 핵심 전시 콘텐츠로 탐라순력도를 꼽았기 때문이다.

'제주목관아 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보고서'엔 제주목관아 발굴·복원 과정을 담은 전시물과 함께 18세기 초 제주 사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첩인 '탐라순력도'를 전시하는 안이 들어있다. 이에 필요한 수장 시

설 조성도 제시됐다.

▶국보 승격 추진 속 관리 인력·예산 따라야=제주목관아 관리사무소는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내년 초 실시 설계에 나선다. 지난 10월 말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한 관리센터 신축은 국비 포함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 관리사무소를 철거한 뒤 지상 2층, 연면적 16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 관리사무소 부지는 제주목관아 관리가 용이하고 제주목관아 후면에 위치해 관람객 동선이 좋다는 이점을 지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측은 신축안대로 향후 관리센터에서 '탐라순력도' 수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국보급 문화재가 될 경우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관련 인력, 예산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수장 여부를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지난 29일 제주아트센터에서 '빛나는 순간' 상영 뒤 소준문 감독과 배우 고두심·지현우가 참석해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선희기자

수난과 치유의 바다... "살았지만 살아지때"

제주영화제 개막작으로 '빛나는 순간' 제주 첫선 4·3체협 꽃자왈 장면 등 고두심이라 가능한 연기 개봉 응원 서포터즈 시동

난 봄 제주에서 촬영된 작품으로 제주 관객들과는 이날 처음 만났다.

소준문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빛나는 순간'엔 '바다에서 숨 오래 참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70대 해녀 진옥(고두심)을 다큐멘터리에 담기 위해 제주에 내려온 PD 경훈(지현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가수 양정원, 소리꾼 안민희, 연극인 진정아·이영원 등 제주 배우들도 화면을 빛냈고 촬영지인 성산을 삼달리 해녀들도 출연자로 나섰다.

영화는 초반 해녀 홍보물로 느껴질 만큼 설명조로 제주해녀 이야기를 펼치다가 두 사람이 꽃자왈로 들어서서 장면 이후로 입체감을 얻는다. 그곳에서 해녀 진옥은 경훈의 카메라를 쳐다보며 어릴 적 체험한 1948년 잔인했던 봄의 사연을 꺼낸다. 숨을 참고 자맥질하는 진옥의 고된 물질은 제주4·3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였다.

'원 테이크 원 컷'으로 촬영했다는 그 장면은 영화의 제목처럼 빛나는 순간이다. 제주가 고향인 배우 고두심이였기에 가능했다. 그는 부모에

게 들었던 4·3을 떠올리며 시나리오에 없는 대사를 더해 객석을 울린 그신을 찍었다.

끝내 차오른 해녀의 눈물은 경훈이 지닌 세월호의 고통과 연결되며 수난 이면서 치유의 현장인 바다로 관객들을 이끈다.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은 해녀 진옥을 통해 관객들이 '제주도 푸른 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제주를 볼 수 있을까.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물에 가겠는가. 어떤 절박함 없이 어찌 극한을 견뎌냈는가. 그러니까, 당신들은 살아란 무엇인가를 말없는 물노동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어쩌면 우리는 큰 빛을 지고 말았다."(허영선 시집 '해녀들' 중에서)

제주영화제는 '빛나는 순간'의 배급 개봉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제주도민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30일 아트인명도앞에서 그 첫 모임이 열렸다. '빛나는 순간'은 12월 23일 오후 7시30분 제주자동차극장에서 한 차례 더 상영된다. 문의 748-050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겨울 초입 여전히 뜨거운 문학들

계간지 다층 시운동 특집 문학단체도 잇단 기관지

가을에 도착했으나 겨울 초입에야 펴는 제주의 문학지들은 여전히 뜨거운 계절을 나고 있었다. 지역과 문학을 잇고 해외로 눈길을 돌리며 제주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중이었다.

계간지에 다층(가을호, 통권 87호)은 '현대시로 부활한 심정'을 기획특집으로 다뤄 시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운동을 소개했다. 다층의 김상숙

등 제7회 전국 계간문예지 우수작품상 수상 특집도 담겼다. 짧은 시인 7인선, 짧은 시조시인 3인선도 실었다.

제주문인협회의 '제주문학' 가을호(제84집)는 특집이 두 개다. 양상민 박재형 고병용 이을순의 '나의 삶의 문학', 김순자 제주학연구원센터장의 '제주어로 문학하기' 주제 지상문학창작 교실을 수록했다.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가을호(70호)엔 4·3 서사시 '한라산'의 이산하 시인과 김수열 시인의 대담이 특집으로 실렸다. 4·3 72주기 특집으로 방송된 제주교통방송 라디오다큐

드라마 시나리오도 볼수 있다. 김연미의 '아름 위로 내리는 뿌리', 김경훈의 '백조일손', 김영란의 '봄날은 오는 거야' 세 편이다.

국제펜(PEN)한국본부 제주지역 위원회는 '제주펜' 앤솔러지 17집을 냈다. '베트남 문화예술 교류 돌아보기'를 특집으로 꾸며 호치민과 육종시, 팡아이스 예술문화회의 시인들의 시 맛보기, 베트남을 주제로 한 회원의 글을 담았다.

서귀포문인협회는 '서귀포문학' 31집을 묶었다. '한국 현대시의 뿌리 서귀포 I'이란 주제 아래 '목욕과 서귀포'를 살쾩고 규규된 시인은 '마을 문학탐방-위미라는 그리움의 몇 가지 이름'을 썼다. 전선희기자

김재이 작가 해녀 그림전 저지마을 갤러리 테이저



김재이의 '바다로'.

개막 전 작품 판매율이 50%를 넘어섰다는 해녀 그림전이 있다. 제주시 환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갤러리 테이저에서 지난달 24일 막이 오른 김재이 개인전이다.

김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다 2017년 미국으로 향했고 미네소타 레드윙 아트갤러리 초대로

'해녀' 주제전을 여는 등 서양화 작업을 벌여왔다. 귀국 후 갤러리 테

이지 전속 작가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 제주 전시에서 완판을 기록했고 최근 '아트 부산'에서도 호응이 이어졌다.

이번 개인전에서 김 작가는 전작들처럼 젊고 당당한 이미지의 해녀를 화폭에 담았다. 그들은 수국 핀 꽃밭을 유영하고 달빛 사이를 날아 다닌다. 비틀스의 앨범 표지를 모티브로 삼은 '동행'에선 30대에서 80대까지 세대를 잇는 해녀들이 있다. 전시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전선희기자

영주고 전국청소년연극제 휩쓸었다

고등학교 연극경연 축제 단체 대상 등 5관왕 올라

제주 영주고등학교(교장 김인기) 공연예술동아리 '날개, 돈다'가 창작극 '얼굴' (이소선 작, 강지수 연출)로 또 한 번 일을 냈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주최로 11월 17~28일 경남 밀양에서 열린 제24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단체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상까지 합쳐 5관왕을 차지했다.

100년 전 청산리 전투를 소재로 만든 영주고의 '얼굴'은 앞서 충남 홍성군 주최 2020년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다. 영주고는 이번에 단체 대상 외에 개인상 부문에서 서문원 교사가 우수 지도교사상을 받았고 고유성 학생은 최우수 연기상, 황재이 학생은 우수 연기상,

양정은 학생은 스태프상을 각각 수상했다.

영주고가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도를 맡은 서문원 교사는 "학생들을 배우로 키우기보다는 좋은 관객을 양성하고 공연예술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되길 바라며 동아리를 운영해왔다"면서 "좋은 무대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교육자로서, 예술가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